

안순금 '내가 사는 세상'



정진웅 '네오임프 레셔니즘'

송재명 '유화-꿈'



▶ 누벨백미술관 '유월의 향기' 전

전통 수묵화부터 추상에 이르기까지

누벨백미술관은 오는 21일까지 '유월의 향기'전을 연다. 전시에는 동양인 전북 출신으로 구성된 한국화 작가 20명이 모여 작품을 선보인다. 서울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은 전북이 전통적으로 한국화의 맥을 잘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집단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 작가들은 한국화의 전통 수묵화에서부터 색채화 및 추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을 담아낸다. 김승호·임대준·이명자 작가는 전통적인 수묵풍

경과 산수화를, 정미현·이철량·최창봉·오송규·이재승 작가는 수묵을 통한 현대적 감각으로 작품을 표현해냈다. 김준근 작가는 벽화기법을 활용해 문인화적 정서를 표현하며, 윤대라 작가는 민화적 이미지를 통해 세대를 풍자한다. 임효·정진웅 작가는 새로운 매체를 기반으로 서정성을 표출하며, 송재명·안순금·조병완 작가는 채색기법을 통한 문인화적 정서를 드러낸다. 박지예 작가는 인물을 통해 여성의 일상을, 박성수 작가는 발목을 통한 대담한 추상의 묘미를, 방정엽 작가는 화면의 구성을 통한 자연의 낭만을 담아낸다. /정해은 기자

전북 출신으로 구성된 한국화 작가 20명 모여 작품 선행 전시는 21일까지 열여

2017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창작가요제, 17일 전주MBC서 방영

대상은 '몰리밴드'가 차지

제2회 JUMF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창작가요제가 17일 밤 11시15분 전주 MBC를 통해 방송된다. 지난 3일 오후 전주 MBC 공개홀에서 진행된 제2회 JUMF 창작가요제는 총 327팀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예선을 거쳐 선발된 13개 팀이 본선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날 대상은 순수창작곡 '몽상'을 부른 동갑내기 5인조 그룹 몰리밴드가 차지했다. 몽상은 꿈만 같은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느낌을 몽환적으로 표현한 곡이다. 대상을 수상한 몰리밴드에게는 1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금상에는 누구에게나 있는 후회되는 과거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곡 '황혼'을 부른 프롤로디가, 은상은 추리소설 아르센 뤼팽에서 모티브를 딴 LUPIN(루팡)을 부른 그룹 LUPIN이 수상했다. 새로운 얼굴의 싱어송라이터와 순수 창작곡 발굴을 위해 마련된 'JUMF 창작가요제'는 대화가요제를 잇는 뮤지션들의 등용문으로 다양한 세대의 뮤지션들이 도전을 펼친다. 한편 '창작가요제'로 포문을 연 2017 전주얼티밋페스티벌(JUMF)은 YB·이적·이수·넬·사이먼 도미닉 등 최강 라인업이 예고된 가운데 오는 8월 4일부터 서울간전주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정해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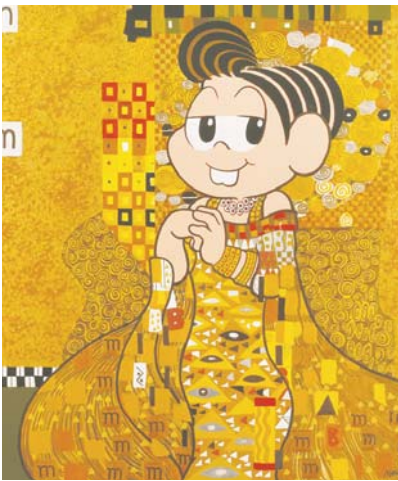


내일부터 이틀간 '전주삼락 페스타'

전주소리문화관(관장 양진환)은 17~18일 양일간 '전주삼락 페스타, 전주한옥마을 한지길을 노닐다'를 진행한다. 전주의 맛·멋·흥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전주한옥마을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공연과 참여행사,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17일 오후 2시 식전공연인 수문장 순라행렬을 시작으로 강릉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과 광명농악(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0호)을, 이어 18일에는 국악버스킹을 비롯해 부산농악(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6호)와 임실팔봉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을 펼쳐 보인다. 농악공연 이후에는 투호던지기·제기차기·떡메치기 등 전래놀이 대회도 열린다. 부대행사에서 나에게 쓰는 편지(최명희문화관), 목판화한지 엮서 만들기(완판본문화관), 부채만들기(부채문화관), 카메라 저금품 만들기(여명카메라박물관) 등을 체험할 수 있다. 17일 오후 7시30분에 진행되는 '산조야! 술이야!' 프로그램에서는 공연관람과 함께 전통주도 시음해 볼 수 있다. /정해은 기자

▶ 익산예술의전당, '모니카와 떠나는 세계 명화 여행' 전

그림을 쉽게 이해토록 캐릭터 재해석



브라질의 인기 캐릭터인 '모니카'

익산예술의전당(관장 김병재)은 개관 2주년을 기념해 '모니카와 떠나는 세계 명화 여행'전을 열고 있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뽀로로와 비견될 만한 인기를 얻고 있는 '모니카'는 남미의 월트 디즈니로 불리는 브라질 출신 만화 거장 마우리시우 지 소우자가 자신의 어린 딸을 본떠 만든 캐릭터다. 우리나라에는 '꽃뚱대장 모니카'로도 익히 알려져 있다. 그는 1983년 투브르 박물관에서 모니카를 스케치하는 어린이들을 보다가 영감을 얻어 '세계명화 여행'전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들이 세계명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재해석해 이를 작품에 반영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를 만화 캐릭터 모니카로 귀엽고 양증맞게 그려낸 작품이 대표적이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경기도·제주도·경상도 등에 이은 여섯 번째 국내 순회 전시다. 전시는 전 세계 31개 미술관을 '세계여행'이라는 콘셉트로 엮었다. 캐릭터 모니카를 넣어 다시 그린 작품 51점, 마우리시우의 작품 세계가 담긴 원화 및 오리지널 드로잉 50여점 등 모두 100여 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모니카 극장' 애니메이션 감상, 명화 색칠공부, 전시감상카드 등 전시와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전시를 관람하는 어린이에게는 선착순 2천 명에 한해 페이퍼토이, 캐릭터기반,



스티커, 컬러링페이퍼, 세계미술관지도 등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오는 8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매주 월요일 휴관)하고, 마지막 수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 개방한다. 평일 오후 1시·3시·5시에는 작품 해설(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관람료는 8천원이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무료다. /정해은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